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1-5 부

인간의 비참함과 무능력

- ◆ 1) 하나님과 놀라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어느새인가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하나님과 세상이 각각 내 마음과 감정을 잡아끌어, 내 마음이 둘 사이에서 나누어진 것 같았다. ... (225)
- ◆ 2) 내가 처함 비참한 상황이 그러했다. 내가 겪어본 고통 가운데 가장 지옥에 가까운 고통이었다. 지옥의 고통은 분명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써, 선을 찾을 수 없는 절망때문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나는 그 상황을 통해 피조물이 누리는 가장 작은 행복마저도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 다른 모든 세상을 다 누릴 수 있다고 해도, 나는 버리지보다도 만 배나 더 비참한 존재일 것이다. (166)

선교사로서의 소명

1) 특별히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 특별한 은혜 속에서 중보할 수 있었다. ...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나를 보내시든지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역과 뜻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라면 어떤 시험을 주시든 감사히 받을 수 있었다. (105)

2) 세상의 즐거움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아 내 안에서 극심한 투쟁이 일어났다. 모든 것을 영원히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사역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이제 맡게 될 사명 때문에 나 스스로를 고난과 고통 속에 내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무덤 속에 눕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았다. 그러나 결국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곳을 향해 나가기로 선택했다. (170-71)

인디언 사역지에서서의 고통 1

마음을 털어놓거나 영적 슬픔을 마음껏 토로할 지체가 한 명도 없다. 하늘의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달콤한 조언을 듣거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것이다. 삶의 위로를 거의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 잠은 짊더미 위에서 잔다. 사역을 힘들고 어렵다. 사역의 열매라도 본다면 위로가 될 텐데. 원주민들에게 네덜란드 식민지 외에는 먹고 살 땅도 없다. 그나마 네덜란드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쫓아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가엾은 원주민들의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내가 아는 한 그들은 나도 미워한다. 내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에다 더욱 나를 슬프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이다. (190-91)

인디언 사역지에서의 고통 2

온종일 몸이 아팠다. 이 연약한 몸이 곧 티끌 속에 들어가겠지, 생각보다 빨리 천국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몸이 몹시 안 좋은데도 입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더 힘들었다. 빵이 떨어졌는데 구할 수도 없었다. 빵을 얻기 위해서는 10, 15 마일 떨어진 곳에 직접 가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야 했다. 빵을 많이 얻은 경우에는 때로 먹기도 전에 곰팡이가 피거나 상하기 일쑤였다. 어떤 때는 곁에 아무도 없이 며칠을 보내야 했다. 그러면 빵을 구하러 보낼 사람도 없고 내가 직접 가기 위해 숲에서 말을 찾을 수도 없었다. 지금이 그런 상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원주민들한테서 거칠게 간 옥수수를 조금 얻을 수 있었다. 그것으로 작은 빵을 만들어 먹었다. 이런 내 환경에 만족한다. 달콤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안락한 삶을 포기해 드릴 수 있었다. 지금의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마치 내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199)

기도의 힘

기도할 수 없다고 해도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려는 시도 속에서 견디는 것, 곧 하나님께 아뢰며 오랜 시간 거하는 것만으로도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체로 은밀한 기도를 더 많이 드릴수록 더 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영을 더 많이 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좋은 시간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것, 시간을 주의깊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모든 시간을 마음과 머리와 손으로 하는 유익한 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평안과 담대함을 얻는 탁월한 길이다. 진정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안이 되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는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선한 양심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탁월한 준비다. 행위나 업적으로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자기확신 혹은 자기의, 경건한 영혼 안에서 선한 양심이 증언하는 거룩한 확신은 분명 다르다. (196-97)

죽음에 대한 묵상

1) 오라, 죽음아, 악수하자, 내가 네게 입 맞추리라.
죽는 것이 내게는 행복이지,
아! 내가 움츠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불멸의 세상으로 갈 것이다. (201)

- ◆ 2) 욕기 14장 4절 - 죽음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 ◆ 3) 죽음 - 힘들고 지친 이 세상에 죽음으로 작별을 고할 생각을 하자 평안한 기쁨이 밀려왔다.

올바른 자기애

올바른 자기애와 잘못된 자기애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전자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후자는 그 반대다. 전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혼의 행복을 결합시켜 둘을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로 만든다. 그러나 후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분리하고 단절시킨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한 채 인간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예로, 남녀 간의 순전한 사랑을 들었다. 남녀 간의 순전한 사랑은 단순히 이성적 주장이나 이기심에 기반을 둔 갈망으로 행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랑은 기쁨을 주는 열정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참된 즐거움이 있다. 그러므로 순전한 사랑은 즐거움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게는 있지도 않으면 있을 수도 없다. (236)

거룩함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거룩을 향해 영혼의 호흡을 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거룩함을 얻거나 거룩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거룩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 오, 거룩함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얼마나 부드럽게 내 영혼을 채우는지! 자신을 벗어나 하나님께 가고 싶었다. 그분을 닮고 싶었다.

천국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거룩을 향해 영혼의 호흡을 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거룩함을 얻거나 거룩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거룩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 오, 거룩함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얼마나 부드럽게 내 영혼을 채우는지! 자신을 벗어나 하나님께 가고 싶었다. 그분을 닮고 싶었다.